



# 성도의벗

## 목차

권두언 .....	3
예언자의 말씀 .....	6
취임사(지방부장) .....	13
선교부장단에 새 보좌 .....	16
나의 제언(지영달) .....	17
계보위원회 소식 .....	23
차종환형제 프토피 .....	25
지방부장단 개편 .....	27
박사학위 수여 (차종환 형제) .....	29
동부지부 헌당 .....	30
돌문농구단 개가 .....	36
바자 .....	38
지부소식 .....	41
침례자 명단 .....	42
8월 각지부 발전상 .....	43

\* \* \* \*

# 卷 頭 言

## “사랑하는 親舊들이여...”

宣 教 部 長 曠 一 文



힘쓰리 장로님이 한국을 방문하셨을 때 가장 인상적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은 그분과 밤낮 나흘동안이나 함께 여행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분과 함께 식사하고 함께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분과 더불어 여러가지 문제에 관

해서 이야기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아시아 대륙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물몬교회의 헌당식을 포함하여 여러가지 모임에도 그 분과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가 서울 특별시 시장님과 경상북도 도지사를 방문하셨을 때 그의 곁에 있었읍니다. 그는 지혜로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도와 더불어 가진 이러한 경험들 가운데서 여러분이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무엇이며 왜 인상이 깊었읍니까?

## 福音가운데 맺어진

### 親舊야말로 가장 좋은 親舊다

#### 裴一文

이 대답은 저에게 까지도 깜짝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나를 감명깊게 했던 일은 대구지부에서 일어났는데 힘트리장토님은 잠깐 그 지부에 들리셨고 그곳에 몇 사람의 성도들이 토였드군요. 그런데 이들 성도들은 기대에 찬 모습들이었습니다. 힘트리장토님이 이 믿음 깊은 몇 사람의 형제 자매들 앞에 서서 말씀하셨을 때 나는 그분이 성도들의 얼굴에 나타난 진지함에 깊은 감명을 받은 사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첫마디 말씀은 그의 마음을 모조리 털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는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그가 "친구"들이란 말을 사용한 것은 내가 처음 들은 것 같습니다. 나는 그가 친구들 가운데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

의 우정에 대한 정의는 나를 감동 시켰든 것입니다. 놀랍도록 솔직한 고백을 들은 나는 눈시울이 뜨거웠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친구"라고(교리완성약 84장 77절) 말씀하신 일을 상기 했으며, 그의 성도들에게 우정에 넘친 충고를 약속하신(교리완성약 104장 1절) 사실을 상기했습니다.

나는 또한 예수님의 준열한 말씀을 마음속에 되새겼습니다.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스가랴 13장 6절)는 말씀과 "신앙은 친구들의 결속이니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로 알려진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른 인간들의 사회와 다르다는 것을 더욱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즉 이것이 친구들의 참된 사회입니다. 그 곳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곳입니다. 그들은 공포나 폭력에는 사토 잡히지는 않으나 감정이나 진지한 우정에는 사토 잡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방맹이 틀 든 순경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정치가나 관리가 아니고 큰 깃방을 들 것을 요구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분의 출현이 언제 어디서 알려져 있다는 사실을 소란스럽게 떠들거나 거대한 기치를 요구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두려워하는 분도 아니고 좌절당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치우치지 않은 정확와 사람을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자비로우신 아버님이십니다. 대구지부에서 모든 사람들의 친구인 하나님은 성임된 종들을 통해서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 함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예언자와 그 성도들 간의 짧은 대질관 (12페이지에 계속)



## 神聖한 結婚

大管長 데이비드 오. 맥케이

결혼에 관한 우리 교회의 숭고한 견해는 교리와 성약 49장에 "... 결혼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점하신 것임이니라. ... " 고 한 다섯말 중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교리와성약 49장 15절)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결혼관이 이 기사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결혼은 가볍게 취급될 성질의 것이 아니며 궤락으로 끝맺어지는 것도 아니며 최초로 당면하는 난관 때문에 마지막 종지부를 찍어야 할 성질의 것도 아닙니다.

말일성도들에게 있어서 결혼은 신성한 의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말일성도들은 가정은 문명을 가장 잘 보존하는 곳이며, 지성있는 부모들이 잘 다스리는 가정은 인류발전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가정은 남성다운 남자와 아름다운 여인들을 배출하는 미덕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 기사에 비추어 볼 때 결혼은 "신성"이란 인이 찍힌 의

식이며, 어느 사람이나 어느 국가도 함부로 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 결혼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 결혼은 영원한 것이라는 뜻으로 " ...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찌니라"고 하셨습니다. ( 마태 19장 6절)

적합하며 서로 잘 어울리는 짝을 찾아 선택한다는 것은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는 문제입니다. 가장 훌륭하며, 고귀한 생활은 높은 이상에 목표를 둔 생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는 결혼 이상으로, "결혼은 신성한 의식이라"는 것보다 더 고귀한 이상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젊은이들이여, 행복한 결혼은 유아기와 청년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결혼을 위한 기획은 일찌기 학교시절부터 시작됩니다. 자신의 여러 재능을 발전시키는 소녀들은 사회에 나가기를 거부하고 가정에 묻혀있는 소녀들보다 훌륭한 배필을 만날 가능성이 더욱 많습니다.

자신의 재능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소녀들은 텔레비존 곁에 앉아있는 소녀들보다 훌륭한 짝을 찾을 가능성이 많게 마련입니다. 환언하면, 여러사람과 사귀고 어울린다는 것은, 서로 알고 친숙해지며 선택할 기회가 많이 오기 때문에 행복한 결혼에 기여하는바가 큰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실에 착안하여 교회 회원들, 특히 여러 보조조직에서 활동적인 젊은 남녀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무엇인가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참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즉

정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젊은이들이 무던히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어느 소녀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소년은 그녀를 그리워하고 꼭 그녀와 짝이 되었으면 하고 갈망합니다. 그러나 반년 즈음 후에는 그가 분명히 사랑한다고 생각되는 또 다른 소녀를 만날지도 모릅니다. 소녀들에게도 "멋 있는 왕자님"(마음으로 그리는 이상적인 배필)들이 있으며 누구를 참으로 사랑하는 왕자님으로 맞이할까 하는 문제로 마음을 조이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어느 소녀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아름다운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다음에 열거하는 것으로 자문해 보십시오. "그녀는 나의 최선의 것을 발휘하도록 나를 고무하는가?" "그녀는 내가 그녀에게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위대한 어떤 것을 성취하겠다는 소망을 갖게 하는가?" 혹은 "그녀는 나의 숙된 기질에만 아필해 오는가?"라고 만약 후자의 경우라면 당신은 그녀를 참으로 사랑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녀에게 일시적으로 반해버린 것에 불과 합니다. 전자의 경우라면 그녀는 깊이 관심을 가질만한 가치가 있는 여인입니다.

젊은 여인이여, 그 남자는 당신으로 하여금 포샤(역자주: 슈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 3막 2장을 보시오)가 그랬던 것처럼 천갑절이나 더 아름답고 만 갑절이나 더 부유하기를 갈망하게 합니까?" 이것은 바로 포샤가 마련해 놓았던 상자를 바사니오가 운명을 걸고 선택할 때 느꼈던 포샤의 소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당신의 저열한 면만을 자극하는 사람과 당신의 최선의 것을 다하도록 고무하는 사람을 분



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두드러진 특성들을 찾아 보시고 그가 이타적인가를 살펴 보십시오. (여기서 "그"라고 한 것은 젊은 남자와 여자 양자에 대한 대명사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을 선택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결혼은 각자가 전혀 취하려하지 않고 주어야만 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는 자제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는 자신의 기분과 언어를 통어할 줄 압니까? 자제력은 하나의 큰 미덕이며 행복한 결혼에 크게 기여하는 요소입니다. 결혼한 다음 화가 나서 격정적이며 비난하는 말을 하고 싶은 충동을 받을 때가 많은 법입니다. 자제력이 있다면 비난하는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난의 말은 충동을 자아내는 보복적인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삼가하십시오.

그는 신성한 것들에 대하여 경건하며 노인들을 존경합니까? 불손하고 신성한 것을 모독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의 배우자로 선택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처사일 것입니다. 그는 신성을 모독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일컬습니까? 그렇다면 그를 멀리하십시오. 불경스러운 것은 가정의 도덕적인 표준을 저하시키는 악인 방종입니다.

만약 제가 당신이라면 저는 그가 경제적으로 성공할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은 그와 함께 살아야 하며, 그는 가족을 부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또한 그를 도와야 합니다. 남자는 공급자가 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부엌 및 기타 계획에서 빈약하기 때문에 적절한 수입

이 균형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젊은이들이여, 당신이 아내로 맞아들일 소녀를 그녀의 집  
에서 만큼 편안하게 해 줄 수 없는 이유만으로 결혼을 너무  
미루지 마십시오. 그녀들이 즐거이 여러분을 도와준다는 사  
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반면 결혼은 가족을 부양  
하고 자녀들을 갖는데에 그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것입니다.

신전 결혼은 어떤 것일까요? 결혼계약의 영원성은 영혼  
의 불멸성이라는 영원한 진리위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대체로 위대한 사상가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에 존재  
했던 가장 위대한 철학자인 동시에 가장 위대한 교사라는 것  
을 인정합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도 추호의 의심도 없이 영  
혼의 불멸성을 믿었습니다. 그는 교회의 회원들에게 육신으  
로 현현했던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살  
았었으며 그분은 여러분이 오늘 밤이 지나면 내일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뜬다는 사실을 믿는 것 처럼 내세를 분명히 믿  
었습니다. 그분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  
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복음 14장 2절)

예수님은 이 사실에 대하여 논란하시지 않고 인정된 사  
실로 받아드렸습니다. 신전 결혼의 가치와 중요성은 불멸이  
라는 영원한 진리위에 세워졌습니다.

신전 결혼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이며 과  
학적으로 건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을 신전  
으로 데려가는 젊은이는 누구든지 자신들의 결합은 자기들을

제단앞에 까지 이끌어 온 자신들의 사랑처럼 영원하다는 것을 알고 그곳에 가야 합니다.

가장 행복한 생활을 갈망하는 젊은 남녀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형태에 합당하도록 즉 지존자의 신전에서 거행될 결혼식에 합당한 남녀의 결합이 되도록 잘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이들은 그곳에서 두 무릎을 꿇고 서로 맹세하며 각각 다음에 열거하는 것들을 마음속으로 되새길 것입니다.

첫째: 자신들의 결혼과정은 순결로 시작되었다는 것, 이 두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탄생되는 자녀들은 깨끗한 몸을 이어받는 한 심스러운 탄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자기들의 종교적인 견해가 동일하다는 것,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담뱃하는 난관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교리 및 교회 참여에 관하여 상이한 견해를 가졌을 때 더욱 악화되게 마련입니다. (이런 이유로 다양한 썸미나, 상호참사회 및 주일학교의 잇점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은 자신과 동일한 신앙의 소유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셋째: 자기들의 성약은 사소한 오해나 난관으로 깨어지지 않는 영원한 결합이라는 관념위에 이루어졌다는 것.

넷째: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가운데에 이루어지며 성신으로 인봉되는 이 성약은 다른 어떤 결속보다 더욱 강하게 맺어진다는 것.

다섯째: 이렇게 하여 시작되는 결혼은 인간의 영화 중, 가장 숭고한 속성인 사랑처럼 영원하다는 것.

여섯째: 이렇게 하여 성립된 가족의 유대는 영원히 끊

어지지 않고 남아 있다는 것. 이상의 몇 가지로 생각할 것입니다.

교회의 젊은이들이여,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짜을 찾는데 도와 달라고 간구할 수 있으며, 선택한 다음에는 들이 함께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게 해 달라고 간구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의 생활이 더럽힘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만약 그 분이 나타나셔서 여러분의 생활에 대하여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정직하게 "네 우리는 깨끗합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결혼은 이생과 영원히 생을 통하여 가장 감미로운 기쁨인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 \* \* \*

(5페이지의 권두언 계속)

계에서 보건데 나는 하나님의 참다운 어떤 친구가 하나님은 인간의 친구였다는 사실을 과시하면 이런 일을 과시하던때의 일들을 저는 곧 잊어버리지 못할 것입니다. 과시도 아니고 허세나 의식도 아닙니다. 지루한 기도도 아니고 굵실거림도 아닙니다. 허풍이나 허식도 아닙니다. 단지 주님께서 자기 친구들을 사랑했던 능력을 주님의 종이 나타내는 일은 그가 하나님이라고 정하고 부른 사실을 확증하는데 불과 합니다. 나는 참으로 감명 깊었으며 이와같은 경험을 가질 수 있는 특권을 주님께 감사 드립니다.

## 就任辭

地方部長 車鍾煥



본인의 지방부장 부름을 하나님과 선교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본인을 지지하여 주신 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침례 받은지는 10여년이 흘렀건만 이렇다할 믿음의 자세를 갖추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이니 힘껏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님들의 심부름꾼이 되어 한국 지방부 발전을 위하여 위토 선교부장님을 모시고 노력할 것을 약속 합니다.

저는 우선 다음의 몇가지 점을 같이 생각하고 노력하기를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진실한 사람이 됩시다.

양심적인 사람, 거짓이 없는 사람, 가면이 없는 사람,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이 됩시다. 진실을 전하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담겨져 있는 말만이 귀를 기우리게 할 수 있습니다. 진실하지 못한 말은 부자연스럽게 들리고 남의 생리를 거슬리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의 생활에 무엇 보다도 갖추어져야 할 일은 참되어 지는

것입니다. (빌 4:8-9)

둘째, 항상 감사히 살아 갑시다.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됩시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살전 5:18)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믿음의 자세안 줄 알고 있습니다. 불평을 하지 맙시다. 불평은 신앙의 결핍을 뜻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어떤 지도자에게 약간의 부족함과 결핍이 있더라도 좋게 보고 선하게 생각합시다. 그리고 그 사람의 다른 장점으로 그 단점을 덮어주고 그를 감사히 여깁시다. 말만의 감사는 믿을 만한 것이 못되는 것입니다.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는 아름다운 음향을 전합니다. 그러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행동으로 감사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아는 것을 실행합시다.

아는 것을 실행하고 믿는바를 실행할 줄 아는 사람들의 집합체가 물론이요, 이것이 돌몬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알고 있으면 하는데 그치지 말고 우리의 본분인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여 말하지 않는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선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알고도 행함이 없으면 알지 못함과 다름이 없고 친하고도 믿지 않으면 친하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무엇을 생각했나, 또는 무엇을 아는가,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은 결국 그다지 중요치 않은 것입니다. 무엇 보다도 중대한 것은 무엇을 하는가의 한 가지 일 뿐입니다. 아는것

은 어렵지 않으나 실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믿는자는 이 어려운 것을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입니다.

넷째, 한국인의 긍지를 자랑합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이지만 남에게 의지하지 말고 우리 힘으로 살아 가도록 노력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는 범위 내에서 정도에 알맞게 생활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그래도 되지 않는 것은 주님께 간구해 봅시다. 응답 되리라 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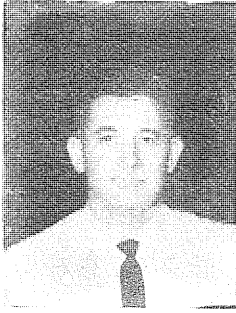
이상적인 인간은 남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 동시에 남의 호의를 받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법입니다. 남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다는 것은 자기가 그보다 우월하다는 증거일 것이며 남의 친절을 받는다는 것은 그보다 열등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오로지 복음만을 위해서 삽시다.

늘 기도하고 간구 합니다. 그래야만 힘과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세상일을 먼저 생각하지 맙시다. 주님을 위해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을 먼저 생각합니다. 늘 자기의 친왕을 자랑하는 사람보다도 말 없이 일하는 사람이 더욱 존경할만한 사람입니다. 복음만을 위해 사는 신앙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삶에 있어서의 피로를 모두 다 제거한 것입니다.

끝으로 형제와 자매님들의 하고저 하는 것이 모두 주님 뜻에 합당한 가운데 성취되기를 기원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깃들기를 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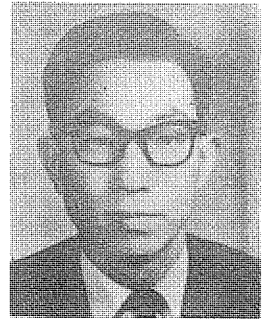
## 宣敎部長團에 새補佐



지난 8월 카우리 형제의 귀국으로 공석이 된 선교부장 보좌의 자리가 금번 동부 지부 헌당식을 기해 다시 채워졌다.

사실상 팔머 선교부장님 취임이래 제이보좌까지를 가져보지 못했으나 공석이 된 제일보좌를 부르면서 제이보좌까지를 불러 한국 선교부 사상 최초로 완전한 선교부장단 조직을 갖추게 된 것이다. 얼핏, 제일보좌, 제이보좌하면 등급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제일이나 제이가 의미하는 것은 등급 이전에 벌써 직책의 성질을 말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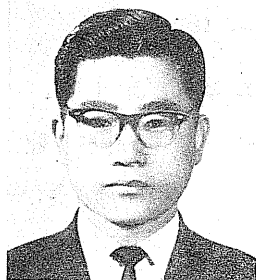
새로 부름을 받아 선교부장단 제일보좌관의 직에 임명된 이.에쓰. 씨 손 형제는 미 육군중령으로 정보과의 베테랑. 현재 제보위원회의와 소년단의 활동을 정상 궤도에 올려 놓기 위해 애쓰고 있다. 선교부의 일체의 재정 문제는 제일보좌의 직책에 포함된다. 제이보좌로는 전 한국 지방부장 이호남 형제,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선교부장단의 일원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다. 지방부장으로 일하면서 온갖 고충을 실제로 체험하면서 한국 지방부가 필요토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아는 우리의 형제가 더 높은 부름을 받고 일하게 된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한다. 제이보좌관은 주로 지방부 행정처리를 담당할 듯하며 자세한 직책은 추후로 발표되리라 한다.





## 나의 提言

池 永達



옛날의 철인들이 남겨놓은 많은 교훈중에서 내가 가장 즐겨 쓰는 것은 "네 자신을 알라" 하는 것이다. 나는 나에게 허용된 이 지면을 통해 먼저 내 자신에게 이 말을 되까려 보면서 다른 "나"들에게 "네 자신을 알라"고 소리쳐 볼까 한다.

"물론"이라고 곧잘 자기를 들어내는 우리 말일성도들은,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도 온전해 질 수 있다는, 영원한 진보의 순차하에서 뛰어난 이상을 향해 발돋움 하며 살아가고 있다. 가장 높은 가능성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발전한 상태로 진화되어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확대 재생산적인 발전의 연속은 그야말로 "자신을 아는" 자기 의식과 판단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그 결과가 기대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들 모두가 진정한 자신을 알고, 모든 것을 계획하며, 생활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줄 안다면, 다른 사람을 직접간접으로 간섭하거나, 충고 받을 여지가 없을 것이다.

우리 한번 "우리"라는 집단을 생각해 보자. 흔히 우리들은 다른 사람의 과오나 자신의 실수를 말할 때, "인간은 불완전하니까 ... "하고 늘어 놓는다. 언제나 이러한 억지 관용과 자위적인 변명은 계속된다. 그러나 필요한 것은 이러한 관에 박힌 변명이 아니요, 그러한 "불완전"을 탈피하려는

노력인 것이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얼마나 "불완전"한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분투하고 있는가? 돌이켜 생각해 볼 때 눈에 띄이는 신통한 변화가 없는 것 같다. 침례받는 개종자 수가 늘어가는 피상적인 변화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선교사 수가 늘어가고, 한국인 선교사가 날로 늘어가며, 새로운 지역이 생겨나고 있다고 그것만이 "우리" 집부의 속살을 살찌게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진정 "우리"들의 속과 겉을 기쁨지게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가장 큰 직접적인 힘은 어디서 나오며 그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나는 감히 이렇게 말하고 싶다. 아무리 교리가 훌륭하고 회원이 많으며, 지도자의 설교가 뛰어나고 교사가 가르치는 공과 내용이 "하늘에 속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보고 듣고 받아들이는 "우리"의 영적인 그릇이 만족할 만큼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 하물며 가르치는 교사나 설교하는 지도자나 받아들이는 회원에게 영적인 깊이가 없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소리나는 궤과리"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바위에 떨어지는 씨앗"이 되고 말 것이다.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영적인 생각과 영적인 언어와 영적인 행동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다. 진실로 영적인 지도자요, 성도라고 손 꼽힐 자가 우리중에 몇이나 있단 말인가? 회원들과 악수를 잘 하는 것만이 영적인 행위가 아닐 것이며, 떨리는 음성으로 기도를 길게 하는 자가 영적인 성도가 아닐 것이며, 교회의 집회에 모두 참석하는 것만이 영적인 생활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고, 준비된 원고를 낭독하며 성우처럼 감정을 살려 가는 것이 영적인 설교는 결코 아닐 것

이다. 또한 세상적인 지식이나 속된 농담으로 다른 사람을 매혹시키는 것이 영적인 일이나 하면, 그것은 더 더구나 아닐 것이다. 진정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영적인 지도자요, 성도라면 몇몇의 주변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존경받고, 모든 성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시공을 초월하여 신망을 받는 압적자라야 할 것이다. 말 한마디나 일거수 일투족이 진실로 성령에 감동된, 그리고 하늘과 늘 속삭이는 기도하는 마음이 짐과 하늘의 뜻으로 판단하는 성품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그의 거룩함과 품위는 하늘을 증거하고 그가 가는 곳에는 늘 밝은 빛이 있으며 그 빛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로운 영향력을 주어야 하고, 함께하는 자들의 마음에 평화를 주어, 그야말로 하나님의 분신인 양 우러러 보여질 그러한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완전해 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진정한 완전은 영적인 발전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영적인 발전은 천국의 지혜를 떠나서는 갈 수 없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양심과 양식으로 어디서나 천국의 지혜에 따라 생활하여야 하며 천국의 표준에 따라 만사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입으로만 천국의 말을 할 것이 아니며, 귀로만 천국의 지혜를 들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이,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감동으로 움직여져야 할 것이다. 의로운 영들이 나날이 불어나는 날, 이 땅의 성도들은 하늘과 땅에 속한 복들을 모두 누릴 수 있을 것이며, 우리 신앙의 후손들에게 거룩하고 영원한 유산을 남겨 주게 될 것이다.

우리는 모두 영성을 복돋아 우리의 생활을 모두 영적인 것으로 바꾸어야 하겠다. 이것은 하루나 이틀동안만 해야 할 과제가 아니요, 영원히 계속해야 할 천부적인 것이다. 바야흐로 곳곳에 뿌려지는 물몬의 씨가, 뿌리가 약한 연고토, 뻣히어지거나,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영적인 양분을 충분히 주어야겠다. 습관에 젖은 생활은 권태를 초래하기 쉽고 입에서만 나오는 선과 의는 메마르기 쉬운 것이나, 하늘의 지혜로 심사숙고하는 영적인 태도는 자기와 이웃들에게 함삼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주며 해의 영광에서의 영원한 승업을 준비시켜 주는 것이다.

다시 한번 내 자신과 다른 "나"들에게 소리쳐 본다. "네 자신을 알라", "너는 영적으로 얼마나 결함이 많으냐", "너는 그것을 알고 있느냐", "너는 얼마나 네 자신을 개선시키려 애쓰고 있느냐", "다른 사람을 인도하기 전에 얼마나 자신을 영적으로 준비시키고 있느냐", "영의 속삭임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 "

영적인 면이 결여된 신앙생활은 오래 가지 못하며, 자기와 다른 사람이 곧 권태와 염증을 느끼게 한다. 현금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신앙으로 생활하는 종교인으로서, 거의 영적인 면이 상실된, 또는 외면한 듯한 기형적인 생활을 해온 것 같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영적인 영양실조로 감화력의 과부족 상태를 초래시키거나, 우리에게서 영적인 것을 구하려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어서는 안될 것이다.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영적인 감화를 받을 수 있는 예배분위기 속에서 천국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한 영적인 분위기속

에 자신을 흠뻑 적시어 볼 수 있기를 바라면, 그것이 만족하게 이루어졌을 때 비토소 교회에 오는 보람을 느낀다. 그러나 영적인 발전은 반드시 신앙생활의 시간적인 잠단이나, 업령의 잠유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것은 개인의 지혜와 각성과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다.

한국에 물몬사의 개척자 페이지를 알차게 장식하여 부끄럽지 않은 신앙의 기초를 놓아,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신앙을 높여 인접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보상을 받고, 우리와 우리의 후손이 복받아 번영케 하고 싶다면, 먼저 우리 스스로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급선무이다.

\* \* \* \*

## 물 몬 消 息

홍 속호 형제 특선

지난번 개인전을 가졌던 삼척지부 홍 속호 형제님은 이번 1966년도 국전에서 서예부에 특선을 하여, 또 한번 한국 물몬의 재능을 발휘하였다. 이렇게 성도들이 획득한 명예를 자신 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 있어서의 물몬을 과시하는 것이니 우리는 홍 형제님과 더불어 특선을 축하해 마지 않는다.

# 韓國地方大會

아래와 같이 한국 지방대회를 개최하오니 회원 여러분들은 많은 친지들을 모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지방부장단 올림

## 서울 지역

11월 19일 (토요일)

오후 4:00 — 5:00	상향회, 주일학교 전체역원회
6:00 — 7:00	신권회 대회
7:30 — 8:30	잠토점원회

11월 20일 (일요일)

오전 9:00 — 9:50	지부장단회
10:00 — 12:00	제일총회
오후 2:00 — 3:30	제이총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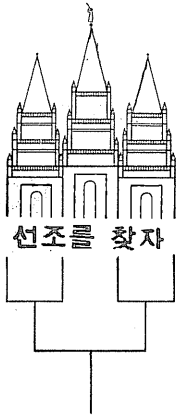
## 영남 지역

11월 26일 (토요일) 부산 동구지부

오후 3:00 — 4:00	주일학교, 상향회 전체역원회
4:30 — 5:30	신권회 대회
6:30 — 8:00	로드쇼

11월 27일 (일요일)

오전 8:30 — 9:20	지부장단회
9:30 — 11:30	제일총회
12:30 — 2:00	제이총회



## 系譜委員會消息

지난 여름에 카우리 형제님이 귀국하시므로서 사실상 선교부 계보위원회가 자동적으로 해산되고 그간 한국지방부들 대표하는 계보담당 평의원이었던 지영달 형제가 계속 일해왔으나 신임 차종환 지방부장의 새로운 정책에 의해 모든 사람이 교회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침을 세웠으므로 지금까지 지방부장단 서기와 계보 담당평의원을 겸임하였던 지영달 형제가 계보 평의원에서 해임되고 새로 박재암 형제가 부름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선교부장단 제1보좌로 계신 세션 형제님께서 한국 지방부의 계보 활동을 위해 함께 일하시게 되었다. 세션 형제님은 미군 중령으로 한국에 오셔서 바쁘신 중에도 한국 물론 소년단을 인도하시면서 계보사업을 도와 수고를 하고 계시다.

돌이켜 볼 때 한국 선교부에 계보위원회가 발족한 이래로 이미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나 그 성과가 결코 만족할만한 것은 못된것 같다. 물론 여러가지 애로와 난관이 있었으나 우선 각 지부 계보 위원들이 일률적으로 크게 활동하지 않았고 회원들이 계보사업에 큰 관심을 보여주지 않았으며 지방부 조직이 완전치 못하였다는 것은 시급히 시정되었어야 할

문제들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중에도 애써 주신 몇몇 계보 위원들의 수고로 그간 작성되어온 가족 기록서는 거의 70부 정도가 되어 한국에서의 계보 사업이 성취될 가능성을 엿 보여 주게 되었다. 유감스러운 것은 지난번에 가족 기록서 2부를 교회본부 계보협회에 보냈으나 중도에서 분실되어 교회본부의 계보협회에서 접수치 못하였다는 것이다. 뒤늦게 확인된 것이므로 이제 다시 가족 기록서를 몇통 보내어 검토를 받은 후 승인이 되면 현재까지 한국 지방부에서 접수한 모든 가족 기록서를 슐트레이크에 있는 계보협회에 보낼 단계에 있다. 아직 우리는 모두가 가족 기록서를 작성치 않았으나 머지 않아 가계도라든지, 복합 가계도, 사진 가계도, 등 여러가지 양식을 번역 인쇄하여 각자 작성하도록 하여야 할 숙제가 남아 있고 아울러 지방부 계보 위원회에서는 여러가지 계보에 관한 책자를 번역 출판하여 널리 계보사업에 관한 지식을 홍보하여야 할 일들이 남아 있다.

그동안 이 지면을 통해 다소나마 도움이 되도록 가족 기록서 작성요령을 언재해 왔으나 머지 않아 계보 지침서가 책자로 출판될 것이므로 더 이상 언재하지 않겠다.

다시 한번 새로 부름 받은 박재암 형제님에게 축하를 드리며 여러 계보 위원들의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세션 형제님의 활동에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 車鍾煥兄弟 프로필

사람의 인품을 이야기하기는 꼭 어렵지만 차종환 형제는 외유 내감이라는 옛문자로 표현해서 크게 탈이 없다. 10년 여를 교회에서 생활해 오면서 무난한 형제로도 든 형제 자매의 사랑



과 존경을 받았고 허술한 듯 빈틈없는 그의 몸가짐은 끝내 오늘의 열매를 거두고 말았다.

남을 해하지 않는 그의 유모는 늘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 주었고 그의 성실함은 극히 서민적인 그의 생활자세로 연결된다.

오늘의 지방부장, 이학박사 차종환 형제는 1935년 전남 감진에서 출생했다. 줄곧 감진에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 입학(생물과) 박사도 향하는 그의 발판을 굳혔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와 인연을 갖기 시작한게 이 시절, 곧 사대 생물과에 재학중이었을 때다. 간증을 갖기 시작하면서 과학도로서의 신앙을 역설했고, 1957년 12월 21일 침례 의식을 받았고 1961년 3월 4일에 장로에 임명되었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과정  
정을 끝냈고 박사과정은 동대 대학원에서 끝낸 것이다.

1966년 10월 12일 11시 동국대학에서 이학박사 학위를  
수여 받았을 때 대한민국에서의 최연소자 박사 탄생을 맞은  
각계의 반향은 대단했다. 1966년 10월 13일자 코리아헤럴드는  
"신 교육 제도에 의한 가장 젊은 박사"라고 평한 바 있었  
다.

10월 9일 12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신 힘클리 사도님께서  
서울 동부지부 헌당식 집행차 내한 하시어 지방부장에게 임명  
하셨을 때에도 차 형제는 평상시의 겸허와 부드러움을 잊지  
않았다.

박사학위를 수여 받기 까지 형제는 서울 사대부고 교사,  
서울사대 부중 교사, 서울사대 조교, 서울사대 강사, 동대농  
림대 강사등을 지냈고 1965년 4월 25일 이 순애 자매님과 결  
혼, 현재 생후 9개월의 장남을 두고 단란한 가정의 가정으로  
도법적인 몰몬 가정의 본보기가 된다.

흥미경과 친한 생활이 그의 오른쪽 시력을 약화시키기는  
했어도 탁구, 씨름등의 스포츠에 있어서는 아마추어의 한 계  
를 훨씬 넘는 실력을 지녔으며 그 밖의 스포츠에도 상당한관  
심을 갖는다.

몰몬에게 알려진 그의 특기 중의 특기는 보칼 솔토. 한  
번 포즈를 취하고 발성을 시작하면 대개 청중은 열광한다.

훌륭한 한국 몰몬 지도자를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하나  
님께서 감사하며 차 형제가 본인에게 보다도 우리에게 주는 의  
미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한다. 차 형제의 신앙과 겸손을

바람으로 한국 지방부와 지방부 산하 성도들의 영적인 복리가 크게 향상 되어 지기를 간구하며 차형제와 차형제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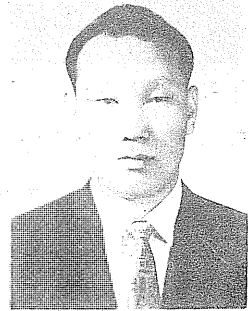
성도의 벗 편집실

\* \* \* \*

## 地方部長團 改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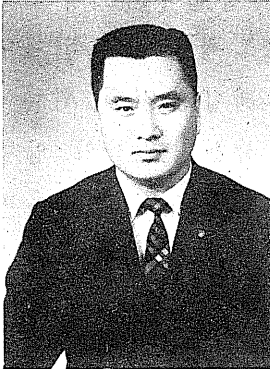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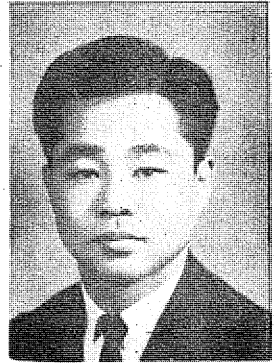
오랜동안 한국지방부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셨던 이호남 지방부장님이 선교부장단 제2보좌에 임명됨에 따라 후임에는 차종환 전 한국 선교부 장로 제일점원회 회장이 임명되었다. 또한 제1보좌에 한인삼 전 삼척지부장이 임명되었으며 제2보좌에는 송태섭 형제님이 그대로 유임되었으며 서기는 역시 지영달 형제님이 계속 수고하시게 되었다.

신임 차종환 지방부장님은 앞으로의 방침을 될 수 있는대로 교회에서의 이충직책을 맡기지 않으므로서 효과적인 임무수행을 기하도록 할 것이며 지방부 평의원을 대폭 증감하여 지방부의 각 조직을 완전하게 할 것이며 성도들이 여러가지 직책을 지내므로서 훌륭한 지도자를 양성하는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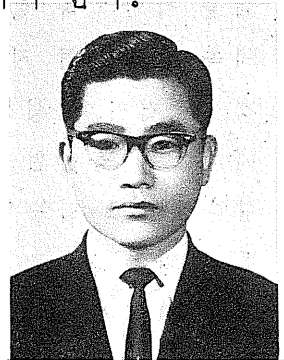
힘쓰겠다고 말씀하셨다. 이제 한국 선교부 발족이후 네번째의 지방부장으로 임명된 차종환 박사님은 전임 지방부장들의 업적을 거울삼아 한국 지방부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성도들을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한다.

제1보좌에 임명된 한인상 형제님은 그의 선교사 생활에서 체험하였던 모든 간증과 지식을 바탕으로 각 지부장님들의 반력자로서 각 지부장님들이 명실공히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협조하겠다는 뜻으로 그동안 한번 가졌던 지부장단 회의에서는 지부장단의 모든 회원들이 심득해야 할 일을 친절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서 많은 보탬이 되게 하였다.



제2보좌이신 송태섭 형제님은 군무와 개업의로서 분망한 가운데서도 다시금 지방부장단의 일원으로서 주로 삼향회의 발전을 위해 계속 수고하실 것이며 이렇게 바쁜 가운데 교회의 일을 함으로서 기쁨을 맛볼 수 있으며 스스로가 발전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므로 제자신 아무리 바쁘다고 교회의 일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 하며 교회에서의 어떠한 부름도 기쁘게 받아드리리라 한다.

그동안 계보담당 평의원까지 겸임했던 지영달 형제님은 지금까지 지방부장단에서 수고하셨던 박재암 형제님이 계보위원회의 일을 맡은 관계로 지방부장단 일에 전심하리라 한다. 우리는 새로운 지방부장단을 마지하여 다 같이 합심하여 이 나라의 교회 발전에 노력해야 되겠다.



## 車鍾煥 兄弟

### 博士學位授與

지난 10월 12일 동국대학교 개교기념식에서는 한국 지방부장인 차종환 형제가 동 대학원에서 이학박사 학위를 수여 받았다. 차종환 박사는 한국에 있어서 우리 돌몬으로서는 최초의 박사학위를 받은 것이며 우리 국내에 있어서 지금까지 학위를 받았던 사람들 가운데 최연소자로서 영자신문 코리아 해럴드지와 동아일보 및 한국일보에서 높이 평가하였다. 차 박사님의 학위 논문 제목은 "도목의 생장에 미치는 조생부초의 영향"으로 학계와 실무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리라 한다.



(학위를 받고 선교부장님과 악수를 교환하는 차 박사)

# 하나님의

"... 아버지시여 이 집을 이 나라의 성도들로 하여금 배움의 집으로, 기도하는 집으로 삼게 하여 주옵시며 젊은이들의 재능을 향상 시키고 발휘할 수 있는 모임의 장소로 하여 주옵시며 ...."

지난 10월 9일 동부지부에서 거행된 동부지부를 하나님의 집으로 헌당하는 헌당식에서 골든 비. 힝트리 사도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운데 일부분이다.

모든 성도들의 여망 가운데 1963년 7월 11일 기공되었던 동부지부 예배당은 만 3년 3개월 만에 하나님의 집으로 헌납되었던 것이다. 그동안 이 예배당은 참으로 성도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처음 각 지부에서 부름을 받은 노무선교사 즉 서부지부에서 윤재철, 김명웅 형제, 동부지부에서 남영진 형제, 대구지부에서의 김상호 형제, 김성규 형제, 부산지부에서의 김형표 형제등 전혀 건축에 대한 기초도 모르는 젊은이들이 미국의 건축위원회에서 과견된 캐네스 디. 루스 형제님의 지도하에 공사가 시작된 것이다. 또한 많은 회원들과 선교사들이 그들의 바쁜 시간을 할애하여 건물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 땅을 파고 부록트를 쌓는데 도와주고 페인트칠을 하는 일을 도와 주고 하였던 것이다. 물론 전문건축업자들이 이러한 건물을 건축하는데에는 1년에 완공을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 예배당은 참으로 우리 한국의 모든 성도들의 정성으로 이루어 졌다는 것을 자부할 수 있는 것이다. 동부지부를 방문한 모든 사람들이 이 건물이 몇사람의 노무

# 집 獻堂

선교사와 한국의 성도들에 의해서 지어졌다는 것을 알 때 그들은 놀람을 금치 못하였다.

기공당시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건축계획을 듣고 도저히 불가능한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 불가능은 오늘날 서울 특별시 용두동 134번지에 가능성을 증명하여 우뚝 솟아있는 것이다.

이 건물은 대지 1,500평에 건평 250평으로서 정식 250명 수용의 엄숙한 예배소와 역시 무대시설이 잡 되어있는 250명 수용의 삼향회 회관이 있으며 보다 큰 행사를 할 때에는 중간 막만을 거두면 600명을 수용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주일 학교 때에 분반 공부를 할 수 있는 8개의 교실 유년 주일학교 교실이 있으며 2개의 지부장실과 1개의 서기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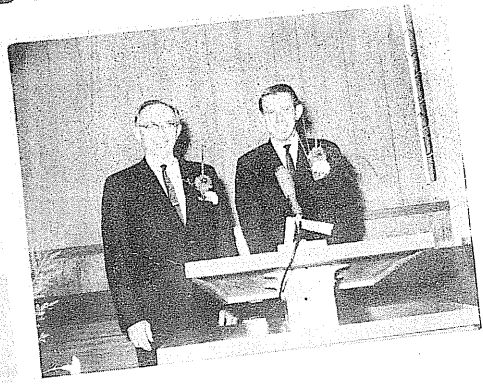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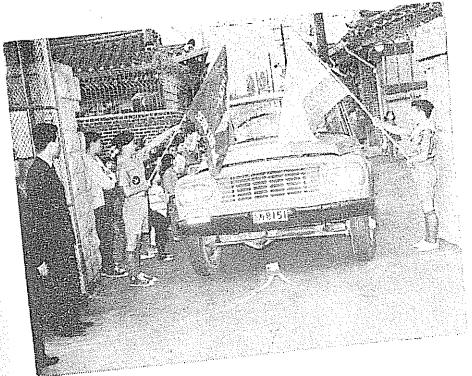
또한 각 교실마다 예배당에서 진행되는 삼향이 중계되는 암프 시설이 다 되어 있으며 상호부조회 실에는 냉장고, 취사도구 등 요리 실습과 일도임에서 쓸 수 있는 여러가지 도구가 완비 되어 있다. 운동장에는 상호향상회의 활동에 불편을 주지 않을 정도의 각종 운동시설이 완비되어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훌륭한 예배당과 시설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이 예배당을 건축하기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루스형제 자매님과 젊은 시절의 귀한 시간을 교회 건축에 바치신 윤재철, 김명웅, 김상호, 김성문, 김형표, 김성규 형제님께 감사를 드린다.

# 하나님의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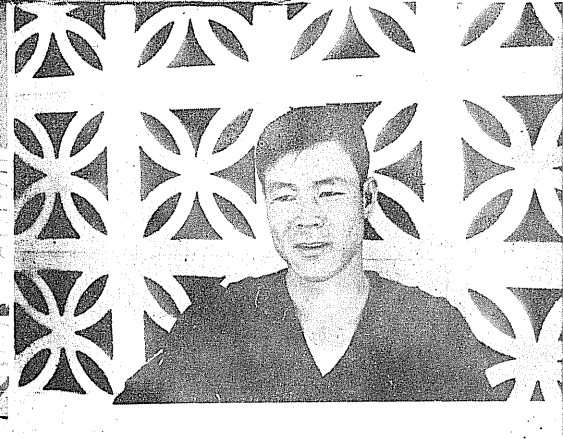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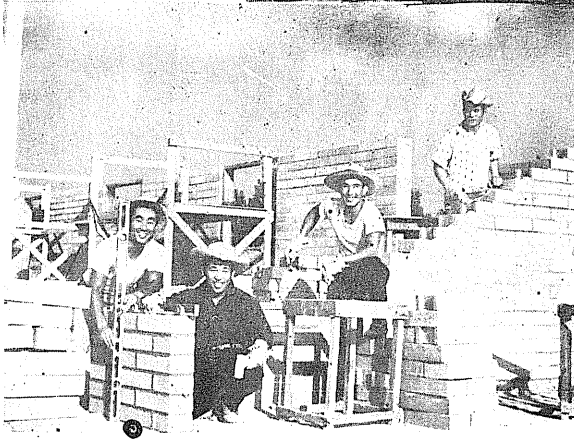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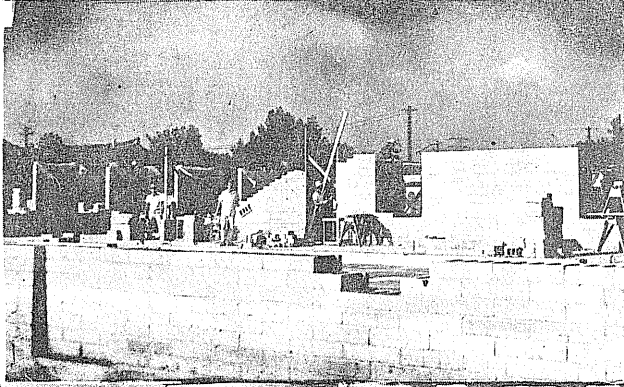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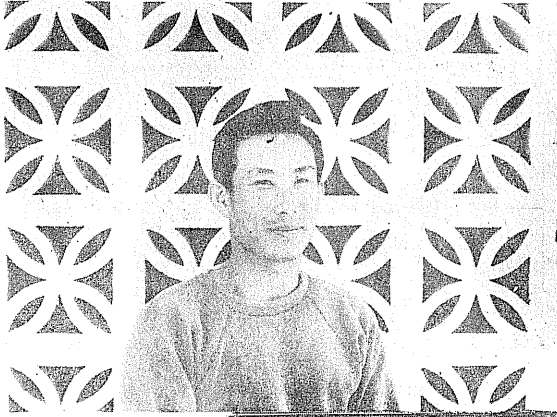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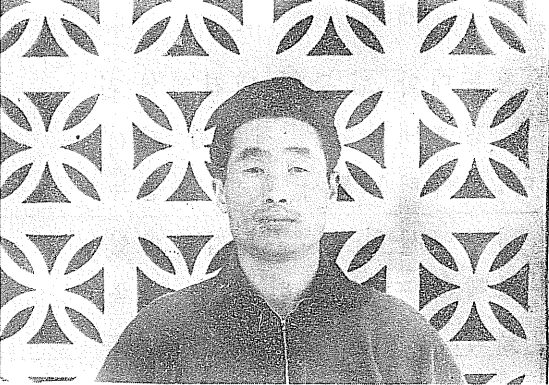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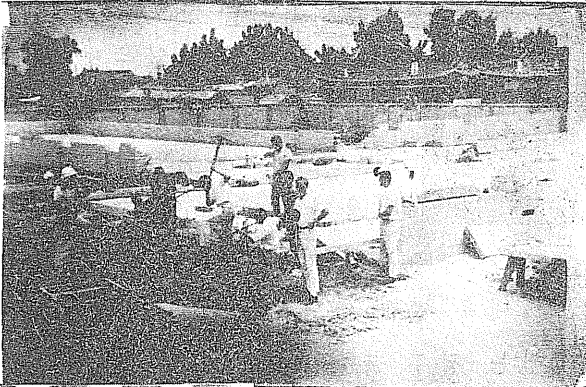
# 報畫堂獻



# 하나님의 집



# 報畫堂獻





# 宣敎「팀」2連勝

## 韓美친선농구靑丘工專놀리

3월하오 3시 대구종합청  
 기장 농구장에서 속개된한  
 • 미 친선농구대회에서 키  
 가크고 주력이강한 미국  
 물론「선교회」팀은 천구  
 는 4일하오 3시 미선교사

공전을 61대51로 가법계한  
 리 2연승했다. 전국 주요  
 도시를순회 한 미친선농구  
 을가까이하게하기위한 동대회  
 「팀」대 경축대학장의 대  
 전을 마지막으로 대구지주  
 의「게인」을「휘날레」한다

# 韓美친선농구大會開幕

## 첫날 선교회 팀 邱大팀을制壓



한. 미 친선농구대회가 2  
 인부터 4일까지 대구종합  
 경기장 농구장에서 말일성  
 드 예수그리스교회주최로  
 사후원으로 열렸다.

첫날인 2일 하오 3시부  
 터 미 선교회「팀」(물론  
 선교회) 대 大邱대학장의「  
 게인」은 키가크고 주력이  
 강한「물론」선교회의 시  
 중「리드」하여 전반전을 29  
 대 25로 끝냈다.

쉬는 시간을 이용 미선  
 교회「들」은「기타」들을

과 의 혼성 팀 으로서 앞  
 으로 전 국 각 중 요 도  
 시 를 순 방 하 여 친 선 대  
 회 를 가 지 므 로 서 우리  
 교 회 의 명 성 을 떨 치 기  
 위 한 일 식 이 조 의 계  
 획 으 토 이 투 어 진 것 이  
 다. 협 재 동 아 일 보 사  
 와 의 교 섭 이 순 조 록 계

고나와「도라지」「아리랑」  
 등 우리교전 노래를 불러  
 한·미간의 친선을 더욱 돈  
 독케했다.  
 후반전에 들어가서도 푸  
 리를쳤다.  
 「에」는「판츠」에 푸른색「런닝  
 셔츠」에 L D S라고 새긴 물론  
 교회팀은 장신들이용 대구  
 대학을 62대59로 승리  
 첫승

진행되면 미국 브리감 영 대학교 농구팀을 초청하여 전국 중  
 요도시를 순방하며 국내 농구팀들과 대전하여 친선을 도모할  
 것이며 말일성도의 이름을 널리 선양하리라 한다. 그런데 과  
 거 미국의 빅토리 농구단에 한국의 모든 농구팀이 이겨내지  
 못한 것으로 과연 세계적인 BYU 농구단이 한국을 방문한다  
 면 일대 썩세이순이 아닐 수 없다. 아무튼 지금 선교부장님  
 께서 고려하고 계시는 것이니까 멀지 않아 실현되리라 믿는다.

성공적으로 끝남에 있어서 이렇게 좋은 계획을 마련해주  
 신 선교부장님께 감사의 뜻을 표하며 선수 여러분들의 분전에  
 감사하며 또한 친선대회의 후원자인 대구일보사와 효과적인  
 광고를 해주신 대구 방송국에 감사틀 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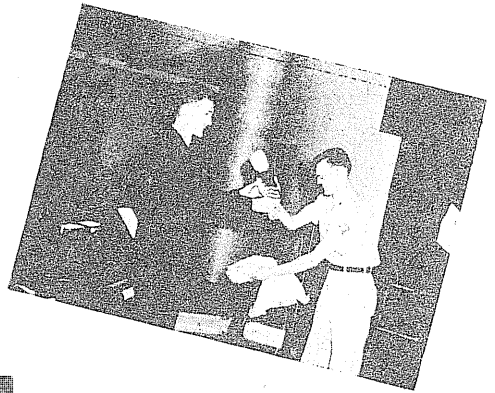
## 바 자 中 繼



매년 10월 9일에 상호부조회가 일년 동안의 일모임의 총결산으로서 바자를 갖는 것이 상호부조회의 엄중행사의 큰 뜻을 차지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10월 9일이 일요일이

라서 10월 8일 선교부 감당에서 개최되었다. 이날의 순서를 잠깐 살펴보면 오후 1시부터 각 지부의 자매님들이 1년 동안 공들여 준비하였던 작품을 전시하여 관매하였으며 같은 시간에 각 지부 상향회에서 준비한 놀이는 한층 흥을 돋구었다. 특히 새로 온 압더장토님은 그가 전공하였던 미용술을 발휘하여 많은 자매들을 더 예쁘게 만들었다. 감당 입구에는 소질 있는 자매님들이 만든 꽃꽂이 작품은 바자를 정말 예술품의 전시장으로 장식하였다. 저녁 식사는 선교부의 일류요리사들이 또한 그분들의 갖은 솜씨를 자랑하여 만든 요리를 대접받았다. 저녁 식사후 베풀어진 특별 오락시간에는 동부지부 예배당을 헌당하기 위해 내한하신 힘크리 사도님 부처를 모시고 환영회 겸 갖게 되어 이날의 바자를 완전히 축제의 도가니로 밀어 넣었다.

# Bazaar 畫報



# 祝 婚

김 종 균 형제  
최 도 증 자매

위 두 사람의 화족을 밝히려 하오니 부디 오셔서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례 선규부장 배 일 문 박사

일시 1966년 11월 19일 오후 3시

장소 동부지부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서울사대 월편)

\* \* \* \*

이 정 근 형제  
유 관 옥 자매

위 두 사람의 화족을 밝히오니 부디 오셔서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례 선교부장 배 일 문 박사

일시 1966년 12월 10일 오후 3시

장소 동부지부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서울사대 월편)



## 各支部 消息

삼척지부장에 이민관 형제

그동안 삼척지부장으로 수고하셨던 한인삼형제가 이번에 개편된 지방부장단의 부름을 받으므로써 후임에는 지부장단 제1보좌로 수고하셨던 이민관 형제님이 임명되었다. 지부장단 제1보좌에는 주덕영 형제, 제2보좌에는 강준봉 형제가 임명되었으며 서기에는 감석훈 형제가 계속 수고하리라 한다. 이 형제님은 우리 교회에 개종한지 얼마되지 않지만 온 가족이 교회의 각 직책을 맡아 충실하게 봉사하고 있는 신앙깊은 형제로 오직 신앙으로서 주님의 사업을 봉사하리라 하고 취임소감을 말씀하셨다.

\* \* \* \*

침운지부장에 정운 형제

지난 11월 첫 주일에 침운지부장단 제2보좌였던 정운 형제가 지부장에 임명되었으며 제2보좌에는 이영환형제가 부름받고 서기에는 남기달 형제가 계속 수고하리라 한다. 정운 형제는 10여년 전 중학교 시절에 우리 교회에 개종하여 오늘까지 꾸준히 교회에 출석하는 신앙깊은 성도로서 이와 같은 축복을 받게 된 것이다. 겸손하고 신앙깊은 지부장을 모신 침운지부의 발전이 기대된다.

## 9월 칠폐자 명단

청운지부—김정자, 윤양희, 이영환, 김성옥, 이영민, 김옥순

대구지부—김경희, 이삼태, 이상영, 최계옥, 정준.

동부지부—박옥자, 신양순, 이수복, 민영란, 백용희, 박영길,  
이홍우, 정대운.

삼척지부—이인재, 김미경, 최옥환.

부산동구—민정감, 김홍래, 성광경, 허수정, 양영석.

서부지부—손승현, 유성목, 오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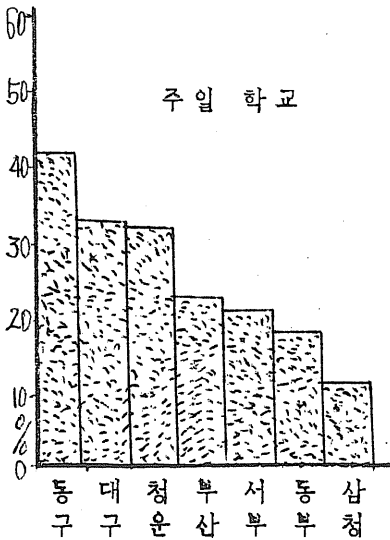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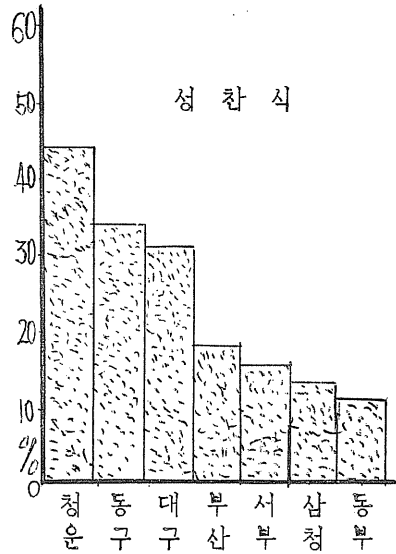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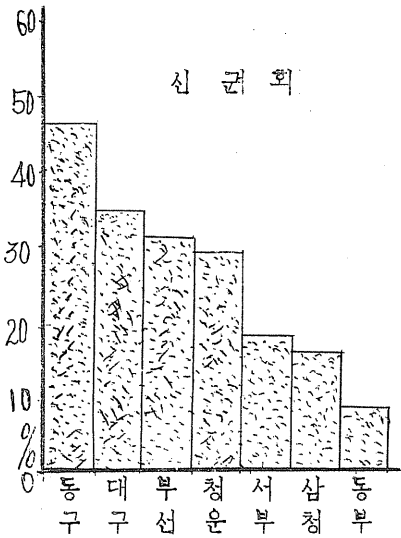
\* \* \* \*

## 편집 후기

시월 삼달도 어느덧. 그리고 벌써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차거운 바람이 불어도 성도의 벼슬 함께 하여 따듯해 하실 성도들께 언젠가 더욱 알뜰한 벼슬 될 것을 거듭 약속합니다. 편집실은 선교부장단과 지방부장단의 개편과 발맞추어 더욱 의욕있는 설계를 펼쳐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목느리고 기다리겠습니다. 보다 알뜰한 내일을 위해서.

(편집실)

# 八月 各支部 發展相



상 향 회  
회 기 없음

末日聖徒 예수 그리스도 教會

韓國宣教部

(住所錄)

- 宣教本部 서울特別市 鍾路區 清雲洞 7番地  
清雲支部 ⑦③ 3995
- 三清支部 서울特別市 鍾路區 三清洞 5番地  
 ⑦③ 3596
- 東部支部 서울特別市 東大門區 龍頭洞134의19  
 ② 1005
- 西部支部 서울特別市 西大門區 忠正路2街58의1  
 ⑦③ 1208
- 大邱中央支部 大邱市 三德洞 2街 24番地  
 ② 6659
- 釜山支部 釜山市 東大新洞 3街 95番地  
 ② 1371
- 東區支部 釜山市 東區 水晶洞 658의 10

166



성도의 벗

發行人 스벤서 제이·팔마

發行人補 韓 仁 相

編輯人 具 重 植

發行所 서울特別市鍾路區清雲洞 7

印刷所 末日聖徒 예수 그리스도 教會 韓國宣教本部